

대구의 밤은 분명 매력적이다. 동성로와 수성못, 앞산 카페거리, 칠곡 운암지처럼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곳들이 여럿 있다. 택시 잡기도 편하고, 심야에 운영하는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카페가 골목마다 들어서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구간도 있다. 특히 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을 방문한 뒤 귀가할 때, 자주 걷는 동선이라도 시간대와 날씨, 주말인지 평일인지에 따라 안전의 체감이 달라진다. 대구는 큰 도시답게 경찰 순찰과 CCTV가 촘촘한 편이지만, 마지막 몇 백 미터에서 긴장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안전 귀가는 습관과 준비의 싸움에 가깝다. 이 글은 그 준비를 돕기 위해, 내가 실제로 적용해 온 원칙과 대구라는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루트 설계법을 정리했다.

밤 11시 이후의 동선은 낮과 다르게 그린다

같은 거리라도 밤 11시 이후에는 체감 거리가 늘어난다. 조도가 떨어지고 보행 밀도가 낮아지면 위험 인지가 늦어진다. 동성로에서 반월당역까지는 낮에는 7분이면 충분하지만, 심야에는 신호 대기과 우회로를 포함해 10분 가까이 잡는 편이 낫다. 이 차이를 계산에 넣고 루트를 설계해야 한다.

지도 앱의 최단 거리 경로는 보행량과 조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골목길의 자잘한 변화들이 밤에는 중요해진다. 가게 셔터가 내려가면 그 구간은 사실상 막다른 느낌이 된다. 폐점 시간이 지난 전자상가 구간은 통행이 적고 CCTV가 끊기는 곳이 있다. 이런 구간을 회피하는 최단 우회로를 미리 저장해 두면, 밤마다 고민할 일이 줄어든다.

대구에서 자주 쓰는 지역별 감각

대구는 권역마다 밤의 결이 다르다. 몇 지역만 짚어도 동선 계획이 수월해진다.

중구 동성로와 반월당 일대는 심야에도 인파가 유지된다. 약국, 편의점, 카페가 골고루 분포하고, 경찰 치안센터가 눈에 띈다. 다만 골목 안쪽, 특히 소규모 주점들이 모인 뒷골목은 새벽 1시 이후 급격히 텅 비는 구간이 있다. 심야 시간에는 큰길 위주로 움직이는 것이 낫다.

수성구 수성못, 범어네거리, 황금네거리 주변은 거주 지역과 상업 지역이 섞여 있어 골목마다 밝기의 편차가 크다. 수성못 순환도로는 가로등이 있지만, 호수변 산책로 내부는 일부 구간이 어둡다. 호수를 끼고 한 바퀴 돌아 집으로 가는 습관은 밤에는 가능한 피한다.

북구 칠곡 운암지와 태전동은 대단지 아파트 사이를 직선으로 가로지르는 작은 통로들이 많다. 이 통로는 낮에는 지름길이지만 밤에는 벤치와 조경수가 시야를 가린다. 차라리 상가라인을 따라가거나 버스 정류장 라인을 따라 걷는 쪽이 안전감이 높다.

수성구 시지, 달서구 두류와 이월드 주변은 행사나 공연이 있는 날이면 심야에도 유동 인구가 많다. 반대로 행사 없는 평일에는 손님이 빠지는 속도가 빠르다. 일정 없는 평일 11시 이후에는 큰 교차로를 찍고 이동하는 방식이 안정적이다.

시작점부터 정한다: “나오자마자 오른쪽으로”

오피스텔 단지는 출구가 여러 개다. 가장 밝고 카메라가 잡히는 출구부터 익혀야 한다. 방문할 일이 있다면 들어갈 때가 아니라 나올 때를 떠올리며 동선을 체크한다. 주차장 출입구 옆, 탑상형 정문, 서브 출입구의 조도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올 때 어느 쪽으로 몸을 틀지, 건물 문을 닫고 몇 걸음을 직진할지까지 정해 둔다. 몸이 기억하면 머리가 피곤한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움직인다.

출구를 나서자마자 정면을 향해 서 있으면 주변을 확인하느라 동작이 멈춘다. 멈춤은 시선을 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오른쪽” 같은 스스로의 구호가 실전에서 도움된다. 실제로 나는 대구 수성구 A오피스텔 방문 후, 오른쪽으로 30미터 이동해 편의점 불빛 아래에서 택시 호출을 한다. 왼쪽은 더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있지만 골목이 어두워 심야에는 제외한다. 거리가 100미터 더 늘어도 밝고 공개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동 수단의 선택은 시간대별로 바뀐다

심야 귀가는 보행, 대중교통, 택시, 대리운전, 그랩형 호출 서비스의 조합으로 해결된다. 대구의 지하철은 밤 11시 전후로 막차가 줄고, 금요일 기준 11시 30분을 넘기면 선택지가 확연히 줄어든다. 막차를 놓친 시간대라면, 버스를 경유하는 루트도 현실성이 낮다. 결국 택시가 첫 선택지가 된다.

대구에는 심야 택시 수급이 요일별로 뚜렷하다.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 1시 전후는 호출 대기가 5분에서 20분까지 된다. 호출이 밀릴 때의 요령은 간단하다. 동성로 중심의 픽업 포인트는 경쟁이 치열하니, 한 블록 바깥의 큰길로 빠져 신호가 있는 교차로 인근에서 대기한다. 기사 입장에서는 끼어들기 쉬운 지점이 선호된다. 차로 폭이 넓고 정차 공간이 있는 육교 아래, 대형 서점 앞, 주차장 출입구 앞 같은 곳이 실제로 잡히는 속도가 빠르다.

대리운전은 도심 외곽 귀가에 강하다. 송현동, 검단동, 이곡동처럼 지하철과 멀고 버스 환승이 번거로운 지역에 살고 있다면, 심야에 단거리 택시 경쟁을 하기보다 대리운전으로 바로 묶는 편이 효율적이다. 다만 대리운전 기사 호출 지점은 밝고 출입구가 명확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점 앞보다 프랜차이즈 카페나 편의점 앞에서 호출하면, 기사와 서로를 찾는 시간이 줄고 불필요한 대치 상황을 예방한다.

걷는다면 이 정도는 기준으로

보행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택시를 타기 위한 픽업 포인트까지, 혹은 지하철역 입구까지는 반드시 걸어야 한다. 이때 기준을 세워 두면 판단이 빨라진다.

첫째, 밝기. 가로등 간격이 촘촘하고, 상가 간판이 켜진 구간을 우선한다. 조도가 낮아지는 순간, 발걸음이 빨라지고 시야가 좁아진다. 입구가 열린 매장들이 이어지는 큰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둘째, 사람. 분산되어 걷는 사람 몇 팀이 보이는지 본다. 동선에 같은 방향으로 걷는 팀이 있다면 그 뒤를 따라가는 것도 방법이다. 너무 밀착하지 않으면서 같은 횡단보도 템포를 유지하면, 혼자라는 인상을 줄일 수 있다.

셋째, 탈출선. 모서리를 돌기 전에 다음 밝은 지점을 눈으로 찍는다. 교차로, 편의점, 약국, 24시 카페 같은 곳이 눈에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다크존이 길게 이어질 것 같다면, 우회한다.

넷째, 지형. 언덕과 지하보도, 인적 드문 공원 내부 동선은 밤에는 피한다. 대구는 여름 밤에도 지하보도 내부가 습하고 소리가 울린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공간은 가능하면 건너뛴다.

동성로 - 반월당 - 명덕로 축선의 실전 루트

가장 자주 쓰는 동선이다. 동성로 골목에서 나와 반월당역으로 갈 때, 골목 안쪽에서 큰길로 나오는 데 2분 남짓이 걸린다. 밤 11시 이후에는 중앙길보다는 국채보상으로 쪽 상가 라인을 선호한다. 국채보상로는 택시 이동이 쉽고, 정차할 공간이 많다. 반월당역 14번과 18번 출구 인근은 택시 호출 경쟁이 다소 붙는다. 그럴 때는 대구백화점 본점 옆쪽 차로로 이동해 호출하면 체감 대기가 줄어든다.

명덕로로 내려갈 경우, 약전골목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은 심야에는 폐문 가게가 많아 시야가 막힌다. 그 대신 명덕로 큰길 보도를 따라 수성교 방면으로 이동한다. 교차로를 기준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CCTV와 가시거리가 일정하다. 1.2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라면, 평균 보행 속도 기준 15분을 잡고, 신호 대기를 고려해 17분까지도 본다. 그 사이 택시 호출을 병행하면 도착 타이밍을 맞추기 쉽다.

수성못 - 범어 - 황금 라인의 선택지

수성못 서편의 카페 거리에서 택시를 타면 기사들이 선호하는 픽업은 들안길삼거리와 수성못입구 교차로다. 카페 앞에서 바로 부르기보다, 교차로로 천천히 걸어 내려오면서 호출을 시작한다. 운전자는 U턴이나 좌회전 대기 없이 바로 정차할 수 있어 기피가 적다.

범어동은 밤 12시 이후 골목의 조도가 떨어진다. 범어네거리에서 동대구로 방향은 유동 인구가 있지만, 반대로 황금네거리로 내려가는 골목은 조용하다. 황금네거리 쪽으로 갈 때는 동대구로 보도를 따라 직진하다가 황금초

교 방면으로 꺾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골목을 한 번에 관통하는 루트보다 5분 정도 더 걸리지만 체감 안전도가 높다.

칠곡 - 태전 - 관음 지역의 아파트 사이길

칠곡의 대단지 사이로 난 산책로는 걸보기에는 안전해 보인다. 평일 저녁 9시 전까지는 실제로 사람들이 산책한다. 문제는 11시 이후다. [대남](#) 벤치와 조경수가 만든 그림자, 바람 소리, 산책로 주변의 낮은 울타리 때문에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를 놓치기 쉽다. 상가가 이어진 주 보행로를 택하고, 지하주차장 입출구 근처는 되도록 건물 복도 쪽으로 붙어 걷지 않는다. 상가 모서리는 시야를 가리므로, 모서리를 돌기 전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꺼두고 주변을 한 번 훑는다. 밝은 화면은 거울처럼 반사되어 시야를 빼앗는다.

택시 호출의 세부 요령

심야에는 호출 실패가 잦다. 같은 자리에서 여러 번 취소를 겪는다면, 문제는 위치다. 택시는 접근과 유턴이 쉬운 곳을 선호한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8차선 도로의 중앙 구간에서 호출하면, 기사 입장에서는 반대차선 접근이 번거롭다. 차라리 반대편으로 건너가거나, 교차로 모퉁이의 정차 가능한 구역으로 이동한다.

택시를 탔을 때는 도착지까지의 경로를 기사와 간단히 맞춘다. “수성못 지나 범어네거리 찍고 황금네거리로 갈게요” 정도의 구두 합의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인다. 요금 분쟁은 대부분 경로 인식 차이에서 나온다. 대구는 주요 간선도로가 명확하고, 우회전과 유턴으로 미세 조정이 가능하니, 기사에게 선호 경로를 간단히 알려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단골 피난처를 만들어 둔다

매번 다른 곳을 기댈 필요는 없다. 집과 직장, 자주 가는 오피스텔에서 500미터 안에 24시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심야 카페 한두 곳을 마음의 피난처로 정한다. 간판과 내부 구조, 직원 배치, 출입구 카메라의 위치까지 머리에 넣어두면, 급할 때 의심 없이 발걸음을 옮긴다. 같은 체인이라도 지점마다 분위기가 다르다. 좌석이 바깥에서 보이는 곳, 출입구 앞이 트여 있는 곳, 화장실이 매장 밖 공용구역에 있는 곳, 각각 장단이 있다. 화장실이 매장 밖에 있으면 매장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반대로 출입구가 트여 있으면 외부 시선이 더 들어온다. 자신의 성향에 맞게 고른다.

전화 한 통보다 위치 공유가 빠르다

귀가 중이라면, 10분 단위의 문자보다 실시간 위치 공유가 유용하다. 대구는 지하 구간이 적어 공유가 끊기는 경우가 드물다. 위치 공유를 시작하면, 상대에게 “지금 이동 중”이라는 설명을 장황하게 붙일 필요가 없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공유를 끄고, 간단히 도착 메시지를 보낸다. 일상화하면 서로 부담이 줄어든다. 혼자 사는 사람끼리도 약속을 정해두면 좋다. 예를 들어, 금요일 밤 12시 이후에는 귀가 시작할 때 2시간 한정 공유를 켜다. 공유를 켜다는 신호가 되면, 상대는 전화로 말을 길게 하지 않고 메시지로만 체크한다. 이런 루틴은 번거롭지 않고, 실제로 도움이 된다.

술자리 뒤의 변수 관리

오피 방문 전후로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다. 알코올은 판단력을 흐리고 체온 감각을 둔화시킨다. 비 오는 밤이면 위험은 배로 늘어난다. 취기가 올라갈수록 귀가 루트를 단순화하고, 통제 가능한 동선에 머무는 것이 좋다. 평소에 쓰지 않는 지하보도, 구석진 흡연구역, 건물 외벽을 따라난 샛길은 이 시간대에 적합하지 않다. 비가 오면 비가림을 찾는 심리가 작동하지만, 비가림 아래는 그림자가 깊다. 우산으로 시야가 좁아지니, 차량 접근 소리와 횡단보도 신호에 더 집중한다.

택시 안에서는 창문을 살짝 열어두면 멀미를 줄이고, 졸음이 덜 온다. 지갑과 휴대폰은 가방 지퍼 달린 칸에 넣는다. 하차 직전에 결제 수단을 꺼내면, 문이 열리는 동안 주의가 분산된다. 하차 후에는 즉시 주변을 확인하고, 건물 출입구를 향해 곧장 이동한다. 하차 지점에서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선이 머문다.

대안 경로를 두 개는 준비한다

모든 계획은 실패할 수 있다. 택시가 잡히지 않거나, 생각보다 빨리 체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럴 때를 위한 대안 경로를 두 개 이상 준비해 둔다. 예를 들어, 동성로에서 수성구로 갈 때, 1순위는 택시, 2순위는 명덕로까지 보행 후 호출, 3순위는 지하철 막차를 타고 반월당에서 갈아타기다. 각 선택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략적으로 기억해 두면, 상황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2순위 경로를 일부러 시뮬레이션해 본다. 평소에 걸어보고, 신호 대기 시간과 밝기, 사람 흐름을 눈으로 익혀둔다.

CCTV와 순찰차의 흐름을 이용한다

대구는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 CCTV를 촘촘히 설치했다. 면적이 넓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잘 보이는 공간은 횡단보도를 마주 보는 지점이다. 밤에는 유독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주변이 안전감이 높다. 도시의 순찰차는 반복 루트를 돈다. 특정 지역을 자주 오간다면, 순찰차가 자주 보이는 시간대를 어렵푼이라도 기억해 둔다. 수성못과 범어네거리 사이, 반월당과 중앙로 사이 등에서는 30분 간격으로 같은 차량이 보일 때가 있다. 순찰차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억제력을 제공한다.

장비보다는 루틴이 먼저다

휴대용 경보기, 라이트, 페퍼 스프레이 같은 장비를 떠올리기 쉽다. 장비는 마지막 단계다. 대부분의 위험은 장비가 아니라 루틴으로 줄인다. 밝은 길을 걷는 습관, 문을 나서며 방향을 즉시 잡는 습관, 택시 호출 지점을 옮기는 습관, 하차 후 망설이지 않는 습관. 이런 작은 루틴이 장비 하나보다 훨씬 큰 효과를 낸다. 그래도 라이트 앱 정도는 설치해 두면 도움이 된다.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면 손에 든 물건이 드러나긴 하지만, 바닥의 웅덩이와 단차를 확인하는 데는 유용하다. 대구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잦고 배수가 빠른 편이라도, 빗물받이 주변은 미끄럽다. 미끄러짐은 부상과 노출을 동시에 부른다.

혼자일 때와 동행일 때는 전략이 다르다

둘 이상이 함께 움직이면 대담해진다. 하지만 동행자는 꼭 안전을 높여주지 않는다. 걸음 속도와 방향 전환을 맞춰야 하고, 대화에 몰두하면 주변을 덜 보게 된다. 동행일 때는 역할을 나누는 게 좋다. 앞사람은 길과 신호를 보고, 뒷사람은 후방을 확인한다. 택시 호출은 한 명만 맡는다. 호출을 두 명이 동시에 하면, 한 대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길가에 오래 머무르게 된다. 하차 시에는 먼저 내리는 사람이 출입구까지 가는 선두를 맡고, 나머지는 간격을 좁혀 따라붙는다. 작은 팀처럼 움직이면, 의도치 않은 분산을 막을 수 있다.

예외 상황의 판단

가끔 동선을 거꾸로 타는 게 유리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반월당에서 명덕로 방향으로 가려는데, 해당 축선의 신호 대기가 길고 택시가 모두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간다면, 잠시 동성로 중심으로 올라가서 다시 잡는 편이 빨라질 수 있다. 체력과 시간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한다. 다만 올라갈 때는 상가 밀도가 높은 라인을 따라간다. 시간은 5분 더 쓰더라도, 안정감은 높아진다.

약천후에는 지하 통로를 활용하는 선택이 생긴다. 대구는 지하상가가 연결된 구간이 제한적이지만, 중앙로역과 반월당역 사이, 일부 구간은 비를 피하기 좋다. 다만 폐점 이후에는 상가 셔터가 내려가 동선이 단절될 수 있다. 출입구 표지판을 확인하고, 막히는 구간이 있는지 미리 찾아둔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출구는 시야 전환이 크게 일어난다. 계단 상단에서 잠깐 멈춰 주변을 살핀다. 눈이 어둠에 적응하기 전까지 1, 2초면 충분하다.

짧은 체크리스트: 나가기 전, 이동 중, 도착 후

- 나가기 전: 배터리 30% 이상, 결제 수단 확인, 호출 앱 로그인 상태, 출구 방향 기억.
- 이동 중: 밝은 길 우선, 교차로를 중간 기착지로, 픽업 지점 필요하면 한 블록 이동.
- 도착 후: 하차 즉시 출입구로 직진, 문 닫기 전 뒤 확인, 위치 공유 종료.

안전은 티가 난다

밤의 동선은 태도에서 드러난다. 망설임 없이 출구를 빠져나와, 밝고 공개된 공간을 통해, 예측 가능한 지점을 거쳐 이동하는 사람은 덜 눈에 띈다. 불필요하게 멈추지 않고, 스마트폰 화면을 과하게 보지 않으며,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변을 슬쩍 살핀다. 이런 태도는 경계의 시그널을 보낸다. 대구는 큰 도시이고, 더 밝은 길은 항상 한 블록 옆에 있다. 그 한 블록을 선택하는 습관이 밤을 안전하게 만든다.

경험에서 나온 자잘한 팁들

대구와 여름 밤은 덥고 습해 땀이 금방 찬다. 땀은 미끄러짐을 불러오고, 물병을 쥐 손은 비어 있지 않다. 작은 크기의 손목 수건을 주머니에 넣어두면, 손을 비우고 그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겨울에는 장갑의 재질이 중요하다. 미끄러운 합성피혁 장갑은 스마트폰과 도어락을 다루기 어렵다. 터치가 가능한 니트 장갑이나, 손가락 끝이 벗겨지는 반장갑 형태가 실전에서 편하다.

지갑은 얇게, 가방은 앞에 메고 지퍼를 완전히 닫는다. 크로스백은 몸통 앞으로 당기면, 팔꿈치와 가방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움직임이 더 안정된다. 천 가방은 비에 약하니, 우산이 없을 때는 신문지 한 장이라도 구해 가방 안쪽에 받친다. 물기가 카드와 전자키에 스며들면, 하차 후 출입구에서 당황한다.

심야에 신호가 긴 교차로에서는 서 있는 위치가 체감 안전을 바꾼다. 횡단보도를 바로 앞에 두고 서 있지 말고, 보행자 신호 버튼이나 교차로 CCTV가 보이는 기둥 쪽으로 서서, 신호가 바뀔 때 한 번에 건넌다. 모서리에서 안 쪽으로 두 걸음 들어가면, 차량의 측면 접근을 더 빨리 감지할 수 있다.

습관을 기록한다

한 달 정도만 루트를 기록해 보면, 본인에게 맞는 패턴이 보인다. 어느 요일, 어느 시간대에 호출이 오래 걸렸는지, 어느 골목에서 조도가 확 떨어졌는지, 어떤 편의점이 신뢰가 갔는지. 짧은 메모면 충분하다. 기록은 다음 선택을 단순하게 만든다. 심야 귀가의 피로는 선택지의 과다에서 온다. 선택지를 줄이고, 신뢰도 높은 선택을 재사용하면, 불필요한 긴장이 사라진다.

마무리 대신, 한 가지 원칙

귀가 루트 설계의 핵심은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원칙에 있다. 대구의 밤은 넓고, 큰길은 대부분 안전하다. 한 블록을 돌더라도, 사람의 눈과 도시의 카메라가 이어지는 라인을 잡아라. 오피 방문 후 피곤한 밤일수록, 이 원칙 하나가 길을 정리해 준다.